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7>

송암집(松巖集)



권갑현 편집위원장

〈송암집〉은 조선 중기의 학자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1532~1587) 공의 시문집으로, 목활자본 6권 2책이다. 1680년(숙종 6) 후손과 제자들이 편집·간행하였다. 서 문은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썼다. 권말에는 후손인 권태시(權泰時, 1635~1719)의 부락으로 류성룡(柳成龍)의 후손 류세명(柳世鳴, 1636~1688)이 쓴 발문이 있다.

권1~3은 시(詩) 500여 수, 권4는 시(詩)·부(賦)·사(詞)·장(狀)·제문, 권5는 녹(錄)·기(記)·서(書)·명(銘) 등이다. 이 중에서 〈한거록(閑居錄)〉은 자신을 유일(遺逸)로 선정하여 관직에 천거(薦擧)하려 하자, 벼슬할 뜻이 없음을 밝힌 글이다. 권6인 〈잡의집록(雜儀輯錄)〉은 부부·부자·형제간의 도리와 노비사역, 제사, 이웃과의 화목 등에 관해 설명한 가집(家箴)과 술좌석의 초정법·예의 등에 관해 설명한 주례(酒禮)로 되어 있다.

이 〈본집〉 외에 1809년에 목판본 6권으로 간행된 〈속집〉이 있다. 권 1~5에는 시가 약 390수 실려 있다. 권6은 부(賦) 4수, 문·기·묘갈·묘지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끝부분에 국한문 혼용으로 된 〈독락팔곡(獨樂八曲)〉·〈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이 있다. 1957년에는 〈별집〉이 간행되었다.

송암공은 시조 태사공 21세로 자는 장중(章仲)이고 호가 송암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이다. 156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서에 류성룡·학봉 김성일 등과 교유하면서 학행으로 알려졌다.

몇 차례의 사화(士禍)를 거쳐 사림(士林)이 주도하는 정국이 되었지만, 공은 한 번도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거나 관계된 적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듭된 권유가 있었으나, 초지일관 벼슬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청성산(靑城山) 기슭에 연어헌(鳶魚軒)을 짓고 만년을 보냈다.

공은 초취(初娶) 광주안씨(廣州安氏)와 재취(再娶) 문화류씨(文化柳氏) 양 부인에게서 혼술을 두지 못해 형 권선문(權善文)의 둘째 아들 참봉(參奉) 권행가(權行可, 1553~1623)를 양자로 들여 입후하였다. 공은 15세 때 퇴계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면서 독서하고 질문하였다. 공은 퇴계의 종의손자로 친척이어서 부친의 명에 따라 퇴계에게 수업을 청한 것이다.

이 무렵 퇴계가 공을 ‘유자의 기상이 있다[有儒者氣象]’거나 ‘소쇄한 산림의 기풍이 있다[有瀟灑山林之風]’고 칭송했다고 전한다. 퇴계는 자신이 지은 시 15운(韻)을 초서와 해서로 써서 법첩(法帖)으로 만들어 공에게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종가에 보물로 전해오고 있다.

공은 초년에서 만년에 이르도록 청성산(靑城山) 백운암(白雲庵)을 주된 독서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때로는 5대조의 묘소가 있는 마감산

(麻甘山) 분암(墳庵)이나 집 남쪽의 송암(松巖) 한서재(寒棲齋) 그리고 청량사(淸涼寺), 학가산사(鶴駕山寺) 등에서 독서하기도 하였다.

공은 25세에 청량산(淸涼山)을, 28세에는 학가산을 유람하였다. 이 때 공은 스승 퇴계에게 108운(韻) 장편 시를 지어 올리기도 하였으며 편지로 요산요수(樂山樂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연보〉 등에 의하면 공은 35세에 모친 삼년상을 마치고 나서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도학(道學) 공부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37세에는 구봉령(具鳳齡)과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을 논하였고, 38세에는 김부필(金富弼)·김언기(金彦璣)와 함께 가야서당(嘉野書舍)에서 〈근사록(近思錄)〉을 논하기도 하였다. 39세에는 〈심경(心經)〉을 읽고 의문 나는 점을 퇴계에게 물었으며, 44세에는 퇴계의 〈이학통록(理學通錄)〉을 교정하고 발문을 지었다.

서른여덟곱 무렵부터 연어헌(鳶魚軒)에서 하연(河淵)·권기(權紀)·박경중(朴敬中) 등에게 강의하고, 십여 년이 지난 48세에는 병산서당(屏山書堂)에서, 50세에는 경광서당(鏡光書堂)에서, 52세에는 여강서원(嶺江書院)에서 제생에게 강론하였고, 54세에는 청성정사(靑城精舍)에서 〈심경(心經)〉을 강의하는 등 퇴계 이후 안동지역 향촌 교육자로서의 큰 몫을 담당하였다.

공은 47세에 집경전 참봉에 제수되고, 50세에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되었으나 두 번 모두 취임하지 않았으며 정탁(鄭琢)이 편지로 벼슬길로 나오라 하자 〈독락팔곡(獨樂八曲)〉을 적어 보내 사양하였다. 53세에 이조참판 구봉령이 6품직으로 올려서 임용하려 하자 〈한거록(閑居錄)〉을 지어 벼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공이 처사(處士)로서의 순결성을 지켜내려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송암집〉은 원집·속집·별집 모두 번역되어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로 출판되었다. 한국고전종합DB에는 이 번역서의 전체 내용과 텍스트 원문 그리고 구두점이 찍힌 원문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본 글 작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래 시는 1540년 송암공이 아홉 살 때 지은 〈도원을 찾아서 [訪桃源]〉이다.

春三月在日之三(춘삼월재일지삼) 춘삼월 삼진날을 맞이하고 보니  
仙輿飄飄正不堪(선옹표표정불감) 신선 홍취 넘쳐서 억제할 수 없어라  
欲逐漁舟向何處(옥축여주향하치) 어부의 배를 따라 어디로 가겠는가  
桃花離落鳥嘯嘯(도화이락조잡잡) 복사꽃 필 울가에서 제비가 제갈대니

위 3, 4구의 내용은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고사로서 여기서는 지금 찾아온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니 굳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 후보와 교육 패러다임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여야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예비후보들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국가의 미래만들기 비전이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대형 이슈에 밀려 학생과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대한 심층토론이 거의 없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시점이 도래했기에 대통령 후보가 살펴야 할 교육 패러다임을 시대적 특성인 첨단화·국제화·장수와 관점에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첨단화 시대에 인공지능과 유전자 편집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인간성 회복과 인간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복합된 메타버스가 등장해 창의력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의 교육은 대학입학수능능력시험에 갇혀 있다.

독일과 스위스 직업계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1주일에 2일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3일간 첨단화된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캐나다 워털루대학생은 2학기를 마치면 선택에 따라 격하기로 학습과 일을 병행하며 첨단화된 기업현장을 익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는 졸업장을 불록체인에 등록, 위조를 방지하면서 인공지능과 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을 쉽게 활용할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의 각급 교육기관도 첨단산업 기술인력과 뿌리산업 기능인력의 질적·양적 미스매칭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큰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둘째,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협업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11년부터 지원하는 마이스터고과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학습의 성과는 매우 크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쓴 체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지원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별로 편차가 격심해져 교육부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직업계고와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까지 확산해서 다양한 수준에서 국제협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관 국제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장수와 시대에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이 필수이다. 고교생들이 ‘선취업 후진학’하여 ‘일·학습 병행’을 할 수 있지만, 더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통로를 열어야 한다.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일터·사회·사이버 공간 등 모두 다שת 마당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학교 밖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융복합적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학교가 지육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덕목·체육·식생활교육 등 4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간관·가족관·사회관·직업관·국가관·세계관 등 6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식생활교육이 필요한 것은 섭생이 심신건강에 긴요하나 소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교육만 생각하는 패러다임에서 탈피, 첨단화·국제화·장수화 시대 특성을 반영한 교육생태계를 만들어야 교육난제를 풀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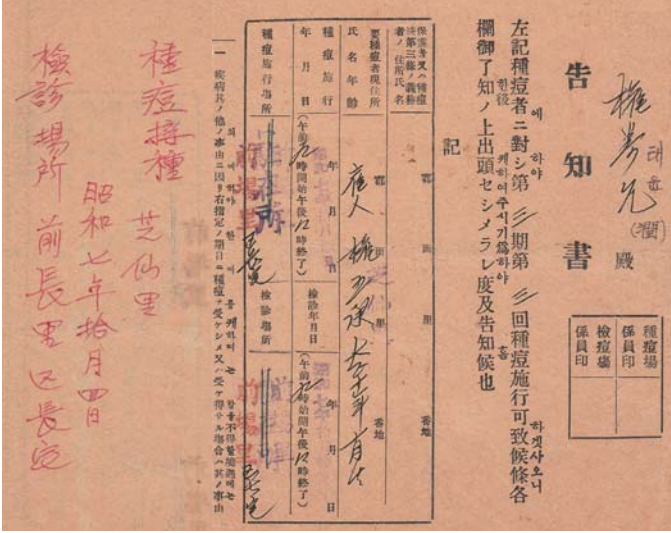
파이낸셜뉴스 [fn광장] 2021.10. 07.

역사 속의 예방접종…종두접종 고지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곤 했는데 코로나19 역시 전 세계적으로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개발하여 코로나를 예방하고 각 국가에서는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종종 전염병 창궐에 대한 기록이 보이곤 하는데 1932년 일제강점기 때는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종두법 제3조 의무자에 대하여 종두(種痘)를 접종하라는 고지서를 민사무소에서 호주(戶主) 권태윤權泰潤에게 발부하고 있다. 호주 권태윤은 권혁원 종무위원의 증조부이다. 고지서는 “종두자에 대하여 제3기 제3회에 종두시행하겠”다는 고지와 함께 접종대상자는 권오승(權五承, 종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접종자 주소와 나이, 시행년월일, 시행장소 등이 명기되어 있다.



본 고지서는 권혁원 대종회 종무위원이 증조부에게 발급된 종두접종 고지서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본지에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오대산 최고의 승경, 금강연



권혁진 박사

추밀공파, 36세, 강원한문연구소

고려 말에 정추(鄭樞, 1333~1382)는 오대산에 들렀다가 금강연(金剛淵)에서 “금강연 푸르게 일렁거리며, 갯 위에 묵은 먼지 씻어내네”라 읊조렸다. 금강연의 푸른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속된 마음이 정화된다. 금강연의 미덕이다. 김세필(金世弼, 1473~1533)도 정추와 같은 경험을 했다.

월정사(月精寺) 옆 금강연(金剛淵) / 金剛淵傍月精寺  
화난 용 울부짖듯 한낮에도 우레 치네 / 白日驚雷吼怒龍  
날리는 물방울 앉아 있는 나그네 적서 / 不惜飛流侵客坐  
늪은 얼골서 오랜 세속 티끌 씻어내네 / 十年塵土洗衰容

바위에 앉아 금강연을 바라보노라면 이전의 내가 아니다. 속세의 찌든 욕망은 금강연의 물로 정화된다. 폭포의 우렁찬 소리는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죽비처럼 내리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이렇게 설명한다. “네 면이 모두 너럭바위고 폭포는 높이가 열 자다. 물이 휘둘러 모여서 못이 되는데, 웅이 숨어 있다는 말이 전해온다. 봄이면 열목어가 무리 지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이 못에 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맥질한다. 힘을 내어 폭포로 뛰어오르는데, 오르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반쯤 오르다가 도로 떨어지기도 한다.”

봄엔 언뜻 양쪽 언덕은 철쭉으로 붉게 물든다. 온통 붉은 가운데 하얗게 부서지는 폭포는 오대산의 자랑거리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열목어는 화룡점정이다. 가을날 망연히 금강연을 바라보면 단풍잎은 그림자를 뿜군다. 붉은 철쭉 대신 붉은 단풍은 또 다른 승경이다. 송광연은 오대산에서 금강연이 단연 절경이라며, 너



럭바위는 갈아놓은 듯이 매끈하고 은빛 폭포는 빗겨 흐른다고 묘사한다. 말에서 내려 거니노라니 속세의 잡념이 말끔히 사라진다고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우통수에 대해 “오대산 서대 밑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곧 한수의 근원[漢水之源]”이라고 밝힌다. 이전에 『세종실록지리지』는 “금강연은 한강물의 근원[漢江之源]이 된다”고 보았고, 허목도 우통수가 산중의 물과 합류하여 월정(月井) 아래에 이르러 금강연이 되니, 한수의 근원[漢水之源]이라고 보았다. 윤순거도 금강연을 한강의 진짜 근원[眞源]이라고 보았다. 한강의 근원에 대한 논란이 예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강연 옆 바위는 금강대(金剛臺)다. 재평윤은 금강연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금강대에서 바로 눈이 아닌 귀로 감상하거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며 내는 소리는 거문고 소리다. 한낮이 아니라 새벽에 들어야 한다. 서리 내리는 늦가을에 제대로 된 맑은소리를 들을 수 있다.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시원한 바람이 옷 속에 서인다.

선인들은 시문으로 흥취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바위에 글씨를 남겨서 금강연을 명소로 만들었다. 정기안은 “월정사에 이르니 절 아래에 큰 시내가 있다. 시냇가 층진 너럭바위 위에 ‘금강연(金剛淵)’을 새겼다.”란 기문을 남겼다. 그가 이곳을 찾았을 때는 강원도 도사로 재직 중이던 1742년이었고, 9월부터 10월까지 오대산, 천후산, 금강산 등지를 유람하는 중이었다. 금강연 옆 바위에 아직도 그가 새긴 글씨가 선명하다. 탐승객들의 이름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오대산 역사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자료다.